

돈 은행으로... 예금 한달새 20조 ↑

“6월 말 기준 총 예금잔액 1200조 돌파... 불확실성 대비 심리 더욱 높아지기 때문”

은행권 수신금리가 1%대까지 떨어 진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총 예금잔액은 1200조원을 넘어섰다. 은행에 돈이 몰리는 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예금은행의 총예금 잔액은 1200조9007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200조원대를 넘어섰다. 이는 전달 대비 무려 20조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이 중 저축성 예금은 1033조461억원으로 전달 보다 14조4328억원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요구불예금은 167조8546억원으로 한달 만에 5조 5974억원이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가계의 총예금이 573조 2695억원으로 전달 대비 3조8042억원 증가했고, 기업이 357조8257억원으로 전달 대비 무려 16조9524억원이 늘었다.

이처럼 가계와 기업 등의 저축이 크게 늘어나는 원인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 소비보다 불확실성 대비에 대한 심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에 돈을 맡겨도 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갈 곳 잃은 돈들이 안전한 은행으로만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우리나라 총 예금잔액은 경제가 불안정한 위기 상황에 더욱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01년 경기침체 당시 예금 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12.5%로 뛰어 올랐고 이듬해에도 12.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후 2004년엔 -1.3%의 이례적으로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인 2007년까지 줄곧 한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예금잔액은 다시 13.8% 늘었고, 이후 2009년과 2010년에도 각각 11.3%,



전통시장 장보기 진용섭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추석을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중앙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과 간담회 후 제수용품 구매하고 있다.

16.3%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유럽과 일본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으나 소비는 늘어 나지 않고 오히려 저축이 증가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저축을 늘려 금을 매입하거나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을 늘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덕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저축 비율은 2010년 이후 최고치인 9.7%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10.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도 올해 가계저축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중앙은행(BOJ)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일본 가계가 보유한 현금 및 예금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3% 상승했다.

기본적으로 가계저축이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재원 마련이 쉬워지고, 이는 가계소득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최근 저축률 상승이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소비를 줄이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은행 등에서 빌려다 쓰는 가계 빚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지만, 그 돈이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빛을 가거나 쌓아두기만 하면서 실물경제에 스며들지 못하고 금융권과 부동산 등에만 머물고 있다.

이러한 소비 위축은 가뜩이나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의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소비절벽' 현상까지 겹칠 경우 우리 경제가 '저축의 역설'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뉴스

지난해 잘못 보낸 돈 1829억원

836억원은 못 받아... 3시간 지연이체서비스 권고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할 때 계좌번호 입력을 잘못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하면 돈을 날릴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착오송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연이체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다섯 번째 금융꿀팁으로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송금이 잘못 이체해 반환 청구를 한 금액은 1829억원으로 이 중 836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착오송금액은 2011년 1240억원에서 2012년 1351억원, 2013년 1903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송금액이 매년 늘고있는데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사용이 증가하고 송금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실수로 인한 송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했다더라도 해당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돈을 받은 수취인이 반환을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한다.

때문에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 주며 확인 절차를 밟는다.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이체버튼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지연이체를 이용하는 것도 권고된다. 은행 등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돼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아차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반환청구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진다. 영업점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전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뉴스

이통3사, 추석맞이 비상체제 돌입

6천여명 투입 고속도로 등에 임시 기지국 설치 24시간 비상근무

한해 가장 많은 통신량이 발생하는 추석연휴를 맞아 이통통신사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오후부터 통신 이용량이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국도 등의 트래픽은 평소 대비 30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추석 당일에는 '공원묘지→국도→고속도로' 순으로 이동통신 트래픽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6일 이통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고속도로·국도·공원묘지 등에 임시 기지국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통3사에서 연휴기간 투입되는 비상 근무 인력은 6000여 명이다.

SK텔레콤은 추석 연휴 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 '특별소통대책'에 들

어간다. 이 기간 SK텔레콤에서는 총 2000여 명의 인원이 비상근무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산물 택배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비해 이를 사전에 감지하는 '스마트아이' 시스템으로 고액 보호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12일부터 18일까지 2100여 명의 비상 근무 인력을 투입한다. KT는 주요 고속도로, 등 총 494개 지역을

트래픽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며 트래픽 처리 용량을 2배 늘렸다.

KT는 내비게이션 KT 내비(구 올레 아이비)의 24시간 비상근무체계는 9일부터 가동한다.

LG유플러스는 14일부터 18일까지를 '연휴 특별 소통 대책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상압동 사옥에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트래픽 부하가 집중되는 지역의 시스템 용량을 기존보다 2~3배 추가 증설하기로 했다.

상습 정체 구간에도 이동기지국을 운영한다. KTX 역사와 터미널, 공항 등 중요 거점지역에는 평상시 2배 수준의 현장 요원을 투입한다. /뉴스

미래부, 100만 '메이커' 양성한다

창업·제조업 혁신 도모

정부가 100만 '메이커(Maker)'를 양성한다. 메이커 문화를 확산해 창업과 제조업 혁신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메이커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서비스를 구상·개발·창작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메이커 운동(Maker's movement)'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창조적 만들기 경험을 축적한 메이커는 스타트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갖고 있어 메이커 운동이 확산되고 창조경제플랫폼이 터져서 우수 제조창업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 지난 2012년 100만달러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스마트워치 '퍼블'이 그 예다.

정부는 초기 단계인 메이커 문화 확

성화를 위해 ▲메이커의 제조창업 촉진 ▲메이커 참여를 통한 스타트업·기존기업 혁신 ▲전문 메이커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메이커 스페이스(도구와 장비를 갖춘 작업 장소) 운영 내실화 ▲메이커 운동 확산을 위한 교류·협력 지원 등을 추진한다.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창업플랫폼을 활용하여 제조 창업에 특화된 창업 지원을 추진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메이커에게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 등의 멘토를 활용해 수

익모델, 품질관리 등 창업 멘토링을 제공하고 다양한 메이커 활동이 '아이디어→시제품 제작→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등록을 지원한다.

또 오픈이노베이션 방식 메이커 참여를 통해 스타트업과 기존기업 혁신을 촉진한다. /뉴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